

절망하고 포기해야 할 현장에서 하나님의 환상 25시를 미리 본 70인 제자 에스겔 -복음으로 여는 에스겔- 에스겔 1:1-3, 사도행전 2:17

정운돈 목사님

* **겔1:1-3**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오 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 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 **행2:17**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전지전능하셔서 우주와 천하만물을 만드시는 가운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시고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가장 의미있고 가치있고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지어주시고 영원토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에서 하나님 자녀로 누릴 있는 축복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6가지 문제, 12가지 문제, 오만가지 문제 속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축복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땅끝 237 나라까지 살릴 수 있는 70인 제자 되도록 하옵소서. 강단메시지를 통해서 치유되고 힘을 얻고 복음과 교회와 후대를 위해 생명 걸 헌신할 이유를 발견하도록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도 발견하는 시간되도록 은혜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원단을 통해 제가 붙잡은 말씀이 있다.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수록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는 것 같다. 문제가 없으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이 그 말이다. 그러나 내게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기대를 갖게 된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의 영혼 속에 박히고 치유하고 힘이 된다. 작년 연말에도 이런 저런 기도제목이 있었는데 원단을 통해서 위기에 도전하라고 하셨다. 절대불가능에 도전하라고 했다. 이 말씀을 들으니 힘이 되었다. 그냥 도전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준비된 만큼 응답이 온다고 했다.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도 준비되지 않은 채 도전한다면 만용이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과 계획을 보이실 것이다. 우리에게 미리 보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라고 했기 때문에, 두려울 것 없이 건널 수 있는 것이다. 아무 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전하는 게 아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왕자와 리더와 사탄의 훈련을 시키셨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하셨다. 이제 백성을 이끌만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사용하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을 만한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램넛들은 그렇다. 저희 어머니의 사촌오빠는 과거에 전국 군인 웅변대회에서 1등을 하셨다. 시도 잘 쓰시고 연기력도 좋으시다. 얼굴도 잘생겼다. 그런데 평생 백수로 사셨다. 부인은 너무 힘들었다. 힘들게 돌아가시니까 세 자녀가 아빠를 너무 미워하는 게 느껴지더라. 전에 삼촌을 만났을 때 Heavenly Talent를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예.제.팀으로는 연기팀을 만들겠다. 여러분들 중에서 연예인과 배우를 기르겠다. 지금은 문화시대다. 램넛들도 연예인이라면 좋아한다. 과거 저희시대만 해도 차장이 있었다. 차비를 받았다. 비스에 사람들 많으면 차장 누님이 비스 안에 사람들을 밀고 했다. 지금의 차장은 아이들이다. 지금은 문화시대다. 그 흐름을 알고 후대들이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겠다. 이제는 세계화시대다. 한국은 세계를 살리고 복음화할 나라다. 그러면 지금 준비를 해야 한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린 이유는 에스겔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꿈을 꾸고 환상을 봤기 때문이다. MBTI를 보면 S(sensitive, 현실적인)형과 N(intuition, 직관적인)형이 있다. 저희 삼촌처럼 연극과 영화와 소설을 쓰는 사람, 창작하는 사람은 N이 강해야한다. S가 강한 사람은 말도 안되는 영화를 싫어한다. 주어진 것은 잘 하지만 창조와 창작을 좀 힘들어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Heavenly Talent가 있다. 저는 에스겔서 1장을 보면서, 환

상이나 꿈들이 나올 때 왜 이해도 안되는 환상을 주셨을까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까 요즘 나오는 영화들이 다 이렇다. 희한한 그림들과 환상들이 지금의 문화다.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처럼 성경은 미리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임할 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라고 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영이 임할 때 젊은이들이 앞으로의 산업이 전기차, 드론, AI 등이구나 하고 미래를 깨닫는 것이다. chatGPT라는 AI가 나왔다. 논문과 레포트도 써 주더라. 철학과에서 철학에 대한 논문을 가장 잘 썼다고 1등한 레포트가 chatGPT가 쓴 레포트였다. 앞으로는 설교제목만 보고 AI가 다 해줄 수도 있다. 이제 실질적인 현장력과 영력이 강해야 한다. 성령이 충만하면 미래를 앞당겨 볼 수 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라고 했다. 미래가 보여야 한다. 감감하고 답답한 것은 흑암과 공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방법은 내 꿈, 내 목적,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이 보이시는 미래를 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다.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은 우상이다. 창3이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나이가 든 어른들은 후대를 위해서 꿈을 꾸고 바탕을 만들어 줘야 한다. 아무 생각없이 죽음만 기다리면 안된다. 우리 다음 여행은 사이판에 가려고 한다. 사이판에서 꼭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찾아보다가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스카이다이빙을 하려고 한다. 영상을 보니까 90세 할머니가 떨어지는 영상도 있었다. 여러분들도 90세 이하는 하지 마라. 늙은이들은 후대를 위한 꿈을 꾸야 한다. 생각이 늙으면 안된다. 120살까지는 눈이 흐리지 않고 팔팔해야겠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미리 보고, 미리 알고, 미리 누리고, 미리 성취하고, 미리 정복하는 응답을 받게 된다. 그러한 환상을 미리 본 대표적인 인물이 에스겔 선지자였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있을 때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미래의 환상을 보게 되었다. 이번에 일본 도톤보리에 갔더니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사카 성을 짓고 상업적으로 그 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만든 운하가 있었다. 운하는 그 나라의 힘을 말해준다. 그발 강가는 그냥 강가가 아니라 운하다. 에스겔은 그 강대한 바벨론의 힘과 경제력 앞에서 기도한 것이다. 그때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환상을 보게 되었다. 그때는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5년째 되는 해였다. 앞으로 희망이 없고 절망만 있는 상황이었지만 에스겔은 기도했다. 가장 어려운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에스겔은 먼저 기도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환상을 보았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위기와 문제와 갈등이 많을 때 더 많은 미래의 꿈과 비전과 환상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은 항상 문제가 많을 때 기도제목을 주시고 꿈과 비전을 보여주셨다. 문제와 갈등이 없으면 발전도, 희망도 미래도 없다. 두 가지 행복이 있다. 즐거우면 행복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후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 정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의 행복함이다. 우리 성도들은 후자의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겠다. 운동도 처음에는 안 되다가 몇 십 번, 몇 천 번하면 될 때가 있다.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힘들고 말씀도 안 들리고 붙잡지도 못하다가 어느 순간 성취된다. 그 행복과 도전이다. 그때까지 도전해야한다.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도전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 안에 다 있다. 조금만 해도 된다.

1.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다양한 환상들과 그 의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상 속에는 하나님의 25시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

(1) 1장 1절로 28절에는 ‘네 생물의 형상’에 대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다.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천사들이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들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 특히, 1장 10절을 보면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얼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그 환상을 보면 막 여섯 날개가 달려있고 네 짐승이 보좌를 받들고 날아다닌다. 이 모습을 보고 에스겔은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나면, 사람의 얼굴은 인자이신 그리스도, 사자의 얼굴은 왕이신 그리스도, 소의 얼굴은 섬기는 그리스도, 독수리의 얼굴은 능동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환상인 것이다. 에스겔서와 다른 모든 성경에 나오는 환상이 지금 신학으로는 다 해석이 되지만 에스겔은 처음에 해석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깨달았을 것이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유토피아를 보면 사자의 얼굴에 말의 몸에 날개가 달려있는 그림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그림들은 바벨론의 강력한 상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강력한 짐승들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런 군대가 될 것임을 말해주셨다.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모든 문제의 결론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 어떤 강력한 것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하신 분이다.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무서운 환상이다. 적의 입장에서는 두렵고 무서운 것이다.

(2) 4장부터 24장까지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이스라엘의 멸명에 대한 환상과 예언을 보여주고 있다. 멸망의 미래를 정확히 볼 때 복음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할 수 있다. 제가 이번에 일본여행을 하면서 가이드에게 카톡이 왔다. 가이드의 프로필에 불교 연꽃이 찍혀있었다. 불상이 가득했다. 좀 센 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분에게 전도할 필요 없다.

즐겁게 지내면서 흑암이 꺾인다. 일본의 운명, 사주, 팔자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무슨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면 된다. 램프들이 얼마나 잘 놓고 잘 먹는지를 보여주면 된다. 반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를 해야 한다. 믿음중심, 교회중심, 예배중심 되어야 여러분에게 참 행복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예루살렘 주민들이 학살당하는 환상과 불타는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셨다. 에스겔은 2차 포로 당시에 끌려온 사람이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의 멸망 환상을 보이시면서 경고를 하셨다. 미래 승리의 응답이 있으면 지금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 모든 게 문제가 된다. 저는 제발 악몽 좀 꾸고 귀신도 보고 불행했으면 좋겠다. 제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도 무섭지 않다. 결론과 답이 있기 때문이다. 가장 가치있는 인생이 있기 때문이다.

(3)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환상으로 알려주셨다. 그것은 강단과 성전에서 흘러나온 복음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 되어 그 현장을 치유하고 축복의 땅으로 만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이었다. 에스겔은 해결의 확실한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갈등할 필요가 없었다. 그 내용이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이다. 천사가 에스겔을 이끌고 가면서 물 천천을 건너도록 하는데 그 물들이 차오르고 강을 살려내는 내용이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전 세계 237 나라를 살린다는 답이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편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 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 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 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 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 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래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물이 바다에 이르니까, 이 다음 구절부터는 축복을 기록하고 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났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클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 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강단 말씀을 통해서만이 오대양 육대주의 모든 바다와 섬들 그리고 237 나라까지 살릴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 25시이다.

2. 즉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장과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25시는 에스겔을 전도자로 파송하는 것이었다. 이 사명을 받은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주신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다.

(1) 첫 번째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다. 에스겔서 2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겠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불신자의 현장으로 우리를 전도자로 파송해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2)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로 파송된 에스겔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전도할 때 여러 가지로 두렵다. 전도하다가 친구나 친척이나 가족이 거부하면 관계가 서먹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한다. 내가 현장에서 전도할 때 나를 뭐라고 하면 어떡할까? 하면서 두려워한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 에스겔 2장 6절을 보겠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잔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다. 전도자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시고

무한대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혹시 실수하고 혹시 잘못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지난번도 말씀드렸던 이상구 엔돌핀 박사가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전도를 했다. 성경을 읽었는데 친구들이 찢어버렸다. 그러나 나중에는 본인이 찢었던 성경을 읽으면서 돌아왔다. 처음에 성경을 읽어보라고 했더니 처음에 편 곳이 창세기에 누가 구백세였더라 하는 말씀이었다.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다시 한 번 성경을 펴니까 똑같이 구백세였더라 하는 말씀이었다. 그런데 그때는 생각이 달라졌다. 내가 의의인데, 사람의 수명은 내가 모르는 분야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처음에 전도하면서 실수하고 거부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언젠가 돌아오게 된다. 우리는 항상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전달해야겠다.

(3)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에스겔서 37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라고 했다. 우리에게 깨우치는 사명을 주셨다. 이어서 에스겔 33장 7절로 9절에서는 파수꾼의 역할과 사명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죄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예수 믿어야 천국가요’ 했다면 죽어서 천국갔을 때 할 말이 없다. 모르는 건 아무 관계없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가게 되어있다. 모르는 것은 아무 관계없다. 하나님이 지으신 법과 원리다. 모르는 게 죄다. 33장 9절에는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전하라” 했다. 하나님은 굉장히 세게 말하고 있다. 협박식으로 전도하라고 하신다. 하도 안 하기 때문이다. 경고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다. 우리들이 경고만 해도 파수꾼의 사명을 다한 것일 때가 있다. 경고가 나쁜 게 아니다. 파수꾼은 적이 쳐들어온다고 알려주는 사람이다. 쓰나미가 몰려온다고 알려주는 사람이다. 예수 믿고 조심하라고,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사람이 파수꾼이다.

(4) 에스겔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말씀을 증거 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였다. 즉,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남은 자, 순례자였지만 그날 강가에서 5년 동안 서밋타임을 갖던 중 하나님이 주신 25시의 환상을 보았고 경고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다가 마른 뼈 같은 사람도 진리의 군대로 만드는 정복자의 응답을 받게 되었다. 에스겔서 37장 10절을 함께 보겠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군대의 환상을 보이셨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과 애굽의 군대를 두려워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뼈다귀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군대가 되어 이길 것임을 환상으로 언약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두려울 것과 염려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응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불신자상태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강단의 말씀으로 살려야 하겠다.

오늘은 에스겔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미래에 대한 응답들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다.

- ① ‘미리 보기’이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날 강가에서 기도에 집중했던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의 모든 환상을 미리 볼 수 있었다.
- ② ‘미리 갖기’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에스겔은 파수꾼의 사명을 미리 갖게 되었다.
- ③ ‘미리 누림’이다. 에스겔은 이스라엘과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미래를 미리 누렸다.
- ④ ‘미리 성취’이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 ⑤ ‘미리 정복’이다. 에스겔은 남은 자, 순례자였지만 미리 정복자의 축복을 체험하였다.

끝으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세팅하기 위하여 에스겔처럼 5가지 미래의 응답을 미리 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 램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겔서를 통해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강단의 말씀만 있으면, 언약으로 주신 25시의 환상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 혼자만 겨우 살다가 죽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환상을 붙잡고 세계복음화를 위해 도전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불가능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